

<지식채널e>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 I. 서론
 - II. <지식채널e>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IV. 설문 결과 분석
 - V.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ABSTRACT

박유신*, 나여훈, 장은주

초 록

<지식채널e>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미니 다큐멘터리로서, 교육 콘텐츠로 널리 활용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식채널e>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성공적인 교육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고,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교사 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교육에서 <지식채널e>의 활용 빈도, 접근 방법, 학습 활동, 문제점 및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식채널e>가 학교 교육에 활용되는 빈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었으며, 교사들은 교육을 위한 방송 콘텐츠를 선정할 때 교육과정 내용과의 적합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채널e>는 수업 동기 유발 자료로 주로 활용된다. 초등 교과별로 살펴보면, 사회, 도덕, 과학 등 내용 지식의 성격이 강하거나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주제에서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지식채널e>와 유사한 콘텐츠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지식채널e>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식채널e>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선하고, <지식채널e>의 제작 방식을 소셜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주제어 : <지식채널e>, 교수매체, 미디어 리터러시, 통합 교육과정

* 이 논문은 2017년 EBS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서론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 콘텐츠는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이다. 영상물의 경우 학습자의 주목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제시하여 문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학습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 학습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¹⁾ 따라서 현재 공교육의 교실 수업에서도 다양한 영상물들이 수업의 주·보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교과용 도서 및 교사용 지도서로서 제작된 영상물 외에도 기존의 콘텐츠, 즉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실사영화, 인터넷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교실 수업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양한 수업 목적에 따라 활용되고 있어 이러한 콘텐츠들이 어떤 과목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 선택되고, 어떤 맥락에서 수업에 활용되는지, 또 왜 선호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향후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 뿐 아니라 현재 공교육에서의 교실 수업에서 미디어 활용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지식채널e>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단편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자료로 즐겨 사용되는 방송 콘텐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식채널e>는 방영시간 총 5분의 미니 다큐멘터리 콘텐츠인데, 비언어적이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지식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유의 방송 스타일로 오랫동안 시청자들과 전문가들의 주목과 호응을 받아왔다. <지식채널e>는 2005년 첫 방영 이후, 2017년 방송 12주년을 맞았으며 인기 있는 회차의 경우, VOD 서비스 시청자 수가 수십만 명을 돌파하고,²⁾ 한 때 시청 충성도가 84%가 넘었을 정도로³⁾ 시청자들의 많은 관

1) 박유신, 이규정, 손지현,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 선정 기준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17, 47: 295-333

2) 가장 조회수가 높은 회차인 <2007,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2007. 4.30 방영)의 경우 2017년 10월 26일 기준 총 331,825 명이 시청하였으며, 두 번째인 <1초>(2005, 9, 25 방영)의 경우 271,709명이 시청하였다.

심을 받아왔다. <지식채널e>의 수상 경력 또한 화려하다. 2005년 방영 이후, 2007년 ‘제18회 한국PD대상 TV부문 실험정신상’ 수상을 시작으로, 방송위원회 대상 우수상(2007), 여성가족부 남녀평등상 방송부문 최우수작품상(2006, 2007, 2009, 2011), 제12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특별상(2009), 제9회 AIBD 2010 TV Award TV부문(2010) 등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내외의 방송, 인권, 환경,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왔다.⁴⁾ 이는 지식 저널리즘으로서 <지식채널e>가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식채널e>가 교육용 콘텐츠로서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주목받아 온 대표적 콘텐츠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식채널e>는 학교 수업, 정부기관, 기업체, 군부대 등에서 교육내용 전달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되어 왔으며⁵⁾, 공교육의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 등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지식채널e>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교사 연수가 개설되기도 하였고, 현장연구 또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지식채널e> 연구를 위한 교사 연구회⁶⁾에서는 총 4000명 이상이 활동해 오기도 하였다. <지식채널e>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을 소개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⁷⁾에서는 <지식채널e> 방송 콘텐츠에서 교사의 글쓰기·토론 수업 설계가 더해져 완성된 주제중심수업, 수업에서의 동기유발 사례 등으로 활용된 사례들을 소개하며, 지식을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시청자에

3) 강현구, 「<지식채널e>의 경쟁력, 자막의 서사전략」. 『한국문예비평연구』 32, 2010, 309-348.
 4) EBS 지식채널 e 홈페이지 <http://home.ebs.co.kr/jisike/index>, 2017. 10. 24.
 5) 류남이, 「방송콘텐츠 서비스 전략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9-10-11(합본호), 2013, pp 93-124.
 6) 이순이, 「‘지식채널e’로 호기심과 수업참여 이끄는 교사모임」, 『행복한 교육』, 교육부,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5&nttId=3160(검색일자: 2017. 10. 10)
 7) ‘말 없는 5분 지식 동영상이 세상을 바꿨어요- [함께하는 교육] EBS <지식채널e> 활용 수업 현장’ <<http://www.hani.co.kr/arti/PRINT/647866.html>>. 2017. 10. 21.

게 ‘화두’를 던진다는 <지식채널e>의 의도가 답이 정해진 수업에 지친 교사들의 요구와 잘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한다. <지식채널e>의 PD였던 한송희는 2013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의 성공은 “교육콘텐츠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⁸⁾ 즉, 전성기의 <지식채널e>는 동시대의 교육 현장에서 원하는 교육 콘텐츠의 역할과 형식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집중하되,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닌, 시청자들에게 화두를 던져서 생각할 거리를 만들며,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식을 완성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이는 <지식채널e>가 교육방송의 콘텐츠를 넘어 수업 콘텐츠로 적극적으로 활용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수업 콘텐츠로서의 <지식채널e>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는 다소 줄어든 상태이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식채널e>에 대한 기사 빈도수를 조사한 아래 표를 보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기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1월 이후에는 기사화 된 빈도가 다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⁹⁾

8) <지식채널e>, 교육 다큐의 새 장 열다', 2013년 4월 30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585307.html>.

9)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이용하여 “지식채널” 관련 기사의 빈도를 검색하였다. 검색 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이고,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식채널”을 포함한 기사 수를 월별로 검색하였다. 그 결과 2011년 6월에는 48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2014년 4월에는 0건으로 가장 빈도가 낮았다.



그림 1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식채널e>에 대한 기사 빈도수

화제성의 감소는 프로그램 성격이 동시대의 시청자 및 교육 수요자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현재 교육 현장에서 교육 콘텐츠의 역할 및 형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채널e>가 현재 학교 교육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 자료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초, 중, 고등학교 교사 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교육에서 지식채널의 활용 빈도, 접근 방법, 학습 활동, 활용상의 유의점, 개선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식채널e>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수업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교육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의 미디어 환경 및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채널e>는 앞서 밝혔듯, 2005년부터 십여년 이상 교육용 미디어로 가장 널리 활용된 대표성을 띤 콘텐츠로서, 전반적인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제작 방향 및 개선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 영상 미디어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현재, 시대를 풍미한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대상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II. <지식채널e>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1. 방송 콘텐츠로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지식채널e>는 내레이션 없이 영상과 자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채널의 구성요소로서 시각적 요소인 자막과 영상, 청각적 요소인 배경음악 등의 요소가 의미 형성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언어적 요소로서 자막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강현구는 <지식채널e>의 대표적인 주제를 네 가지로 나누고, <지식채널e>의 자막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지식채널e>의 모든 편에서 자막은 ‘프롤로그-제목-본편’의 순서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었는데, 주제에 따라 시각, 소재, 강조점에 차이가 있었다.¹⁰⁾ 주제별로 살펴보면, ‘불편한 진실’에서는 자책감과 두려움의 두 축에 기대어 서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나 희생자의 육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반성적 시각’은 왜곡의 실상 또는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상의 발견’에서는 자연물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상의 과학적 실용적 생명적 가치를 다루었고, 인공물은 대상의 문화적 사회적 의미 등을 다룸으로써 인간과의 동반자적 의미를 드러냈다. ‘소외된 이웃’은 소외된 이웃이 처한 현실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거나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상아·윤여탁의 연구는 다큐멘터리의 언어 창의성을 중심으로 <지식채널e>를 분석하여 라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여 ‘프레임의 인식을 위한 메시지 생산’과 ‘유용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이라는 창의성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채널e>가 미디어 텍스트임에도 내레이션 대신 자막을 적극 활용하며 이 표현 방식이 음악이나

10) 강현구, 위의 글

영상과 조응하며 ‘전환’ 과 ‘지연’ 이라는 기법과 연결된다고 보고 이것이 메시지 전달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¹¹⁾

이러한 요소들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조수선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자막>로 구성된 <지식채널e>와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영상+음성>, <영상+자막+음성>의 형태로 편집된 영상물을 비교하여 내용회상, 장면회상, 재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¹²⁾ 그 결과 <영상+자막>이 내용 회상과 재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언어적 시각정보인 방송자막이 학습적 인지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 박신영은 메시지 자극의 양상이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시각적 자극보다는 ‘음악’이라는 청각적 요소의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반응으로서 새로운 지식습득과 메시지에 대한 몰입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 배경음악은 메시지에 대한 주의, 흥미유발, 지식 습득, 감정적 반응과 메시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의 유인가가 희망적인 경우 흥미유발, 감정상태에, 우울한 경우에는 설득과 행동의지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식채널e>의 의미 구성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방송콘텐츠로서 어떻게 기획되고 서비스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김남일은 댓글 순으로 <지식채널e> 5편을 선정하여, 어떤 수사학적 과정에 따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다른 대항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시청자들은 전복적 즐거움을 느끼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고

11) 이상아·윤여탁, 「다큐멘터리의 언어적 창의성 연구」. 『국어교육연구』 31, 2013, pp 169~197.

12) 조수선(2012). 「방송언어정보의 시각적 전달양상에 관한 연구-<지식채널e> 자막의 학습적 인지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6), 2012, pp 310~333.

13) 박신영,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극에서 문자와 음악이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EBS <<지식채널e>>를 통한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24(6), 2010, pp 166~208.

밝혔다.¹⁴⁾

2. 교육에의 활용 방안 및 효과와 관련된 연구

<지식채널e>의 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학교 급별, 교과 및 주체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우선 초등에서는 과학¹⁵⁾, 사회¹⁶⁾, 도덕¹⁷⁾, 환경¹⁸⁾ 교과의 연구가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 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¹⁹⁾도 있다. 중등²⁰⁾에서는 국어²¹⁾, 도덕²²⁾, 사회²³⁾, 체육²⁴⁾과의 연구가 있으며, 인성교육을 위해 지식채널을 활용한 사례²⁵⁾도

-
- 14) 김남일, 「사회적 쟁점에 대한 발언으로서 다큐멘터리의 수사학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3, 2011, pp 53~72.
 - 15) 신선혜, 「초등과학 수업을 위한 지식채널 e 활용방안」,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6) 이광수, 「초등 사회과 수업에서 영상자료 ‘<지식채널e>’의 활용에 관한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7) 조선혜·임동택 「<지식채널e>를 활용한 초등 도덕과 교육방법」. 전국도덕윤리교육학회 201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원고, 2014, 157-204.
 - 18) 이선혜, 이상원 「초등환경교육을 위한 지식채널 e 활용방안」. 『환경교육』, 26(2), 2013, 175-193.
 - 19) 전윤주, 이상원, 「지식채널 e를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26(2), 2015, pp 47~66.
 - 20) 이은정, 「‘<지식채널e>’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1) 윤영미, 「영상 텍스트 비판적 읽기 지도 연구-EBS ‘<지식채널e>’ 읽기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애경, 「영상 자료를 활용한 쓰기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논술 쓰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큐멘터리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2) 구승용, 「중학교 도덕 수업을 위한 EBS ‘지식채널e’ 프로그램 활용방안」, 2011, 경북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이경수, 「사회과 수업사태에서 영상매체 활용 방안-<지식채널e> ‘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24) 이태구, 김규리, 이한주, 「스포츠멘십 함양 체육수업 개발과 적용」. 『체육과학연구』, 2016, 27(2), pp 362~381.
 - 25) 전은희, 「중학교 인성교육의 실제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계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4(2), 2016, pp 255~303.

있다. 이 연구들은 학교 교육에 <지식채널e>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지식채널e>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급 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윤영미(2009), 김수연(2008), 김애경(2011)
도덕	조선혜·임동택(2014)	구승용(2011)	
사회	이광수(2012)		이경수(2011)
과학	신선혜(2009)		
체육		이태구 외(2016)	
환경	이선혜·이상원(2013), 전윤주·이상원(2015)		
인성교육		전은희(2016)	
진로교육	이은정(2014)		

표 1. 학교급 및 교과별 <지식채널e> 관련 연구

우선, 교과 내용에 맞는 <지식채널e>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선혜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지식채널e>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기 방영된 프로그램 중 과학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초등 과학 수업에서 <지식채널e>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²⁶⁾ 그 결과, 2008년 8월까지의 방영분 중 생물과 지구과학 영역에 해당하는 주제가 73편인 반면 물리와 화학에 해당하는 주제는 9편 정도에 그쳤다. 교과서 단원 구성을 바탕으로 수업의 단계별로 살펴보면, 동기유발에 활용할 만한 주제는 19편, 심화 정리 단계에서 활용할 만한 주제는 51편으로 분류되었다. 환경 교과의 연구인 이선혜·이상원은 환경관, 환경 문해력, 영상 자료 매체 특성 분석 항목의 3개 영역에 따른 분석 요소를 마련하여, 초등환경교육의 내용에 적합한 주제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선정 방안을 마련하고, <지식채널e> 활용 방

26) 신선혜, 위의 글.

안을 마련하였다.²⁷⁾ 조선혜·임동택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과의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을 통해 단원을 통합하고 사진과 영화를 이용한 창의적 표현과정을 적용하여 9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²⁸⁾ 이 프로그램은 지식채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타인의 경험을 해석해보는 활동,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표현하고, 자서전을 작성한 다음 <지식채널e>로 제작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지식채널e>의 교육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있다.²⁹⁾ 김애경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채널e>을 활용한 논술 쓰기 프로그램을 5회기에 걸쳐 실시하고, 인쇄 자료를 활용한 논술 쓰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과 비교하였다.³⁰⁾ 그 결과 논술 쓰기 능력 수준이 중, 하인 집단에서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논술 쓰기 능력 하 수준인 집단에서는 논술 쓰기 태도도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채널e>와 같은 영상 자료는 특히, 학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학습 속도가 느린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윤주·이상원은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³¹⁾ 이태구는 스포츠맨십을 함양하기 위하여, 최선, 상대존중, 동료 배려, 결과인정, 판정존중의 다섯 영역에 관련된 영상 15편을 선정하고, 워크시트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³²⁾ 연구 결과 학생들의 스포츠맨십 검사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27) 이선희, 이상원, 위의 글

28) 조선혜, 임동택, 위의 글

29) 김애경, 위의 글
전윤주, 이상원, 위의 글
이태구 외, 위의 글

30) 김애경, 위의 글

31) 전윤주, 이상원, 위의 글

32) 이태구, 김규리, 이한주, 위의 글

<지식채널e>의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지식채널’이라는 명칭은 명시적 지식, 즉 인지적 영역의 교육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전은희는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는 매주 1회씩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식채널을 시청하도록 하는 중학교의 사례도 포함되었다.³³⁾ 이러한 사례는 지식채널은 인성교육을 위한 자료로 쉽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은희는 전교생에게 일괄적으로 지식채널을 제시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교과에서 지식채널을 선택한 이유는 음향과 자막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성찰을 촉진할 수 있고, 시의성이 있거나 가치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에 착목하여, 많은 연구들에서는 학교 교육에 지식채널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과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교수·학습 설계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다음에는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식채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별, 교사별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연구회나 동학년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 교사 간 상호 교차 및 검증을 하는 과정과 실험 연구를 통해 지식채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지식채널e>의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방송 매체 및 교수 매체로서

33) 전은희, 위의 글

의 <지식채널e>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종 문헌과 단행본, 신문 기사를 검토한 결과 및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샘플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각 학교급별, 교과별, 주제별 <지식채널e>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설문지 문항 초안을 작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학교교육에서 <지식채널e>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1) <지식채널e>활용 경험, (2) 수업에서의 활용 양상, (3) <지식채널e>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7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경력 성별 학교급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초등학교	10	19	19	37	6	41	9	78	219
중학교	2	13	2	16	2	9	7	24	75
고등학교	3	13	4	13	5	12	6	11	67
총계	15	45	25	66	13	62	22	113	361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학교급별)

전체 참여자 수는 총 361명으로, 초등교사는 219명(60.7%), 중등교사는 142명(40.3%)이다. 성별로는 남교사 75명(20.8%), 여교사 286명(79.2%)이고, 지역별로는 대도시 243명(67.3%), 중소도시 80명(22.2%), 읍면지역 38명(10.5%)이다. 경력별로는 5년 미만 16.6%(60명), 5년 이상~10년 미만 25.2%(91명), 10년 이상~15년 미만 20.8%(75명), 15년 이상 37.4%(135명)이다. 수집한 결과는 구글 설문과 엑셀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SPSS 22.0)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설문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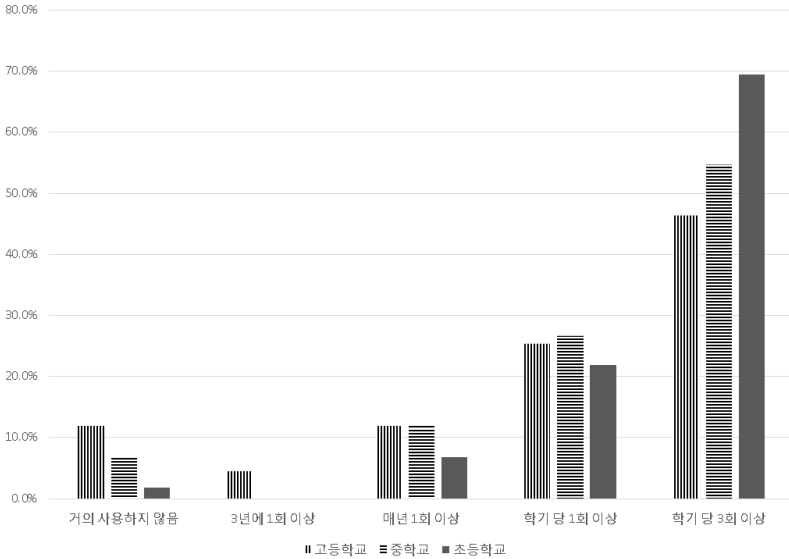
1. <지식채널e>의 활용 경험

지식채널 사용 빈도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학기당 3회 이상 활용한다고 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중 62.0%였다. 또한 학기당 1회 이상 활용한다고 응답한 교사도 23.5%에 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는 전체의 4.7%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식채널e>를 수업에 활용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69.4% 이상이 학기당 3회 이상 활용한다고 답하고 있어, 고등학교(46.3%)에 비해 높은 활용 빈도를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 중에는 지식채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도 11.9%로 나타나서 초등학교에 비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식채널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학습량과 난도가 높아지는 것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효용도 학교급	거의 유용하지 않음	조금 유용함	보통	유용한 편임	매우 유용함	전체
고등학교	0(.0%)	3(4.5%)	4(6.0%)	31(46.3%)	29(43.3%)	67(100.0%)
중학교	0(.0%)	1(1.3%)	3(4.0%)	30(40.0%)	41(54.7%)	75(100.0%)
초등학교	1(.5%)	2(.9%)	4(1.8%)	94(42.9%)	118(53.9%)	219(100.0%)
전체	1(.3%)	6(1.7%)	11(3.0%)	155(42.9%)	188(52.1%)	361(100.0%)

표 3. <지식채널e>의 교육적 효용도



<그림 2> 초, 중, 고 교사들의 <지식채널e>의 활용 빈도

<지식채널e>의 교육적 효용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매우 유용함(52.1%)’ 과 ‘유용한 편임(42.9%)’ 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95.0%에 달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여준다.

학교급	활용 빈도	거의 사용하지 않음	3년에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학기 당 1회 이상	학기 당 3회 이상	전체
고등학교		8(11.9%)	3(4.5%)	8(11.9%)	17(25.4%)	31(46.3%)	67(100.0%)
중학교		5(6.7%)	0(.0%)	9(12.0%)	20(26.7%)	41(54.7%)	75(100.0%)
초등학교		4(1.8%)	0(.0%)	15(6.8%)	48(21.9%)	152(69.4%)	219(100.0%)
전체		17(4.7%)	3(.8%)	32(8.9%)	85(23.5%)	224(62.0%)	36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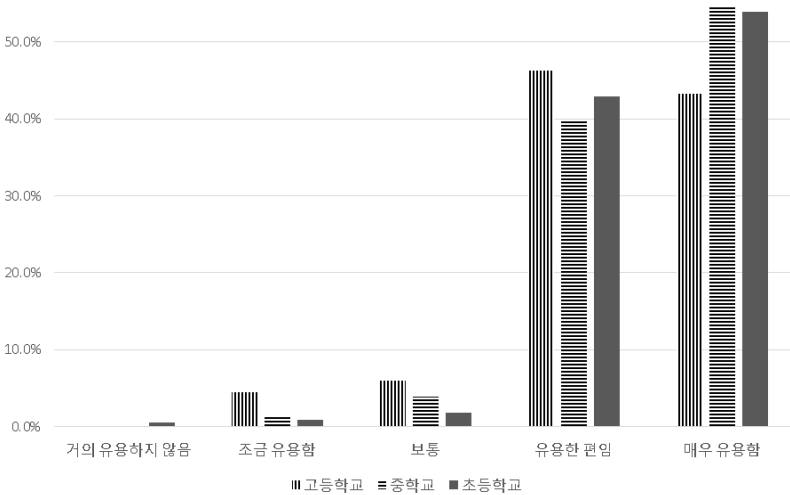
표 4. <지식채널e>의 활용 빈도

<지식채널e>의 교육적 효용도와 사용빈도의 관계, 학교급별에 따른 <지식채널e> 사용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육 효용성	사용빈도	재직 학교급
교육 효용성	1	.290**	-.105*
사용빈도		1	-.262**
재직 학교급			1

*p<0.05, ** p < 0.01

표 4. 교육적 효용도, 사용빈도, 재직 학교급 간 상관도



<그림 3> 초, 중, 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지식채널e>의 효용성

<지식채널e>의 교육적 효용성과 사용 빈도의 상관계수는 .290으로,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사들이 <지식채널e>의 교육적 효용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용 빈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재직학교급과 사용빈도의 상관은 -.262이며, 재직학교급과 교육적 효용성의 상관도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1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등학교 교사보다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식채널e>의 교육적 효용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편이며,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수업에 주로 활용하는 미디어 콘텐츠

본 연구진은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선정할 때의 고려사항을 조사하였다. 특히 수업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2개의 문항은 3개까지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교사들의 선호도가 섬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프로그램 중 수업에 가장 즐겨 활용되는 콘텐츠는 <지식채널e>(346건, 40.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다큐프라임>(202건, 23.7%)과 <역사채널 e>(167건, 19.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식채널e>의 활용 빈도가 EBS의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도 매우 교사들의 수업 활용도가 높으며, 수업 콘텐츠로서의 인지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수업에서 선호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범주로는 <지식채널e>와 같은 미니 다큐멘터리 콘텐츠(317건, 35.2%)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튜브 등 사용자 제작 콘텐츠(135건, 15%), 교사 제작 콘텐츠(124건, 13.8%)의 선호도가 높았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 및 교사 자체 제작 콘텐츠 등이 기업에서 만든 교육용 콘텐츠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최근의 미디어 콘텐츠의 추세를 보여주었다.

<표 5>는 교사들이 수업 콘텐츠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교사들은 교육용 콘텐츠를 선정할 때 교육과정 내용과의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효과성이나 흥미, 편집의 참신성에 비하여 매우 비율이 높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개정기에 있는 현재,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보여준다.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① 교육과정 내용과의 적합성	272	75.6
② 방송 프로그램의 흥미 및 재미	11	3.0
③ 방송 편집의 참신성	5	1.4
④ 방송 내용의 교육적 효과성	66	18.3
⑤ 콘텐츠를 구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편리성	5	1.4
⑥ 주어진 사실을 충실히 전달하는가에 대한 여부	1	0.3
기타	1	0.3
계	361	100.0

표 5 방송 콘텐츠 선정 시 고려사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식채널e>등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현장 수업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며, 향후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작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지식채널e>의 수업에서의 활용 양상

본 연구에서는 <지식채널e>의 수업에서의 활용 양상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로 <지식채널e>를 선택한 이유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장면이 구성되었기 때문(153건, 22.6%),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151건, 22.3%), 수업에 활용하기에 영상의 분량이 적절하기 때문(146건, 21.6%)의 순서로 나타났다. 수업 상황에서 <지식채널e>에 접근하는 경로는 유튜브 이용(39.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식채널e>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 이용(29.9%)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수업 콘텐츠를 검색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① 유튜브 이용	142	39.3
② <지식채널e> DVD 이용	2	0.6
③ <지식채널e>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이용	108	29.9
④ 포털 사이트 이용	37	10.2
⑤ 인터넷 교사 커뮤니티에 탑재된 자료 이용	56	15.5
⑥ 주변 교사(모임) 등을 통해 수업에 활용할만한 콘텐츠를 얻음	13	3.6
⑦ 출판사나 교육청 등에서 제공한 교수·학습 자료에 포함된 콘텐츠	3	0.8
계	361	100.0

표 6. <지식채널e>에의 접근 방법

<지식채널e>를 수업에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수업의 동기 유발 자료(331건, 55.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분 이내의 짧은 방송시간, 수업을 위해 분위기 환기가 되는 감각적인 영상 스타일 이외에도 <지식채널e> 특유의 문제 제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스토리텔링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수업의 심화 활동자료(132건, 22.0%)로 나타났다. 즉 <지식채널e>본시 수업을 위한 핵심 자료보다는 수업의 전후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관련 지식을 확장하거나 심화활동을 통해 다음 학습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채널e>를 수업에서 활용할 때 연관지어 실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응답에서는 ‘소감이나 생각 말하기’ (54.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지식채널e>가 수업의 전개나 심화 단계보다는 동기 유발을 위해 활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나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18.8%)나 토의·토론하기(12.5%)와 같은 활동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그 외의 기타 의견으로 ‘하나의 자료로 제시, 수업내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함, 간단한 내용 확인, 위에 언급된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 관련 활동 없음, 활동을 제시하지 않음. 주제에 대해 공감하기’ 등이 제시되었다.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① 소감이나 생각 말하기	196	54.3
② 토의·토론하기	45	12.5
③ 학습지 빈 칸 채우기 (단답형 문항에 답하기)	29	8.0
④ 영상을 보고 자기 생각을 글이나 그림, 영상 등으로 표현하기	66	18.3
⑤ 수업에서 본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학습 진행	18	5.0
기타	7	2.1
계	361	100.0

표 7. <지식채널e> 시청 후 학습 활동

미니 다큐멘터리인 <지식채널e>의 특성 상 교과별로 활용되는 정도와 비중에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초등학교 교사에 한정하여 교과별로 활용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과별로 활용 빈도에 대해 매우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 매우 낮음(1)의 5단계로 표현하도록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매우 높음 및 높음의 비율이 50% 이상인 교과는 사회(78.2%), 도덕(73.2%), 범교과(61.7%), 창의적 체험활동(60.7%), 과학(54.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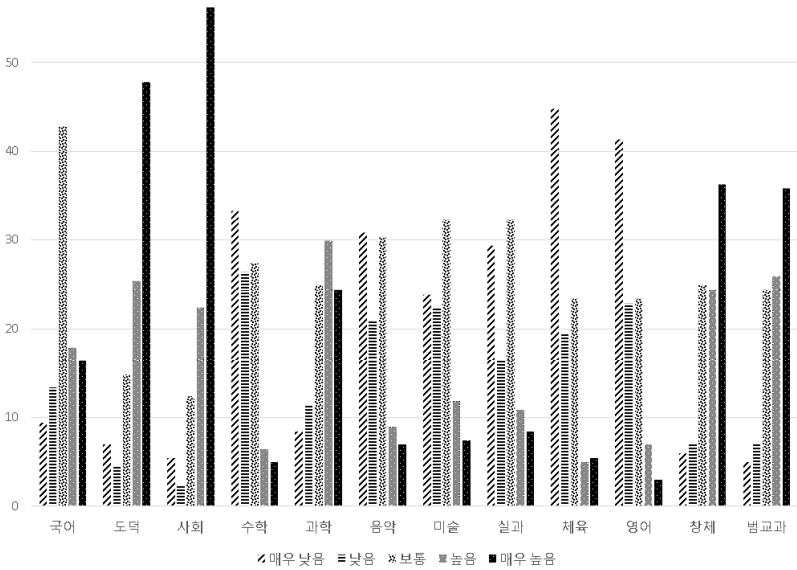
특이한 점은, 일반 교과 외 범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지식채널e>가 즐겨 활용된다는 점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범교과 학습주제는 인성교육, 안전·건강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진로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를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

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³⁴⁾ 따라서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지식채널e>등의 교육콘텐츠들이 교육과정 재구성 및 통합교과 운영 차원에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과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결측치	계
① 국어	명	19	27	86	36	33	-	201
	%	9.5	13.4	42.8	17.9	16.4	-	100
② 도덕	명	14	9	30	51	96	1	201
	%	7.0	4.5	14.9	25.4	47.8	0.5	100
③ 사회	명	11	5	25	45	113	2	201
	%	5.5	2.5	12.4	22.4	56.2	1.0	100
④ 수학	명	67	53	55	13	10	3	201
	%	33.3	26.4	27.4	6.5	5.0	1.5	100
⑤ 과학	명	17	23	50	60	49	2	201
	%	8.5	11.4	24.9	29.9	24.4	1.0	100
⑥ 음악	명	62	42	61	18	14	4	201
	%	30.8	20.9	30.3	9.0	7.0	2.0	100
⑦ 미술	명	48	45	65	24	15	4	201
	%	23.9	22.4	32.3	11.9	7.5	2.0	100
⑧ 실과	명	59	33	65	22	17	5	201
	%	29.4	16.4	32.3	10.9	8.5	2.5	100
⑨ 체육	명	90	39	47	10	11	4	201
	%	44.8	19.4	23.4	5.0	5.5	2.0	100
⑩ 영어	명	83	46	47	14	6	5	201
	%	41.3	22.9	23.4	7.0	3.0	2.5	100
⑪ 창의적 체험활동	명	12	14	50	49	73	3	201
	%	6.0	7.0	24.9	24.4	36.3	1.5	100
⑫ 범교과	명	10	14	49	52	72	4	201
	%	5.0	7.0	24.4	25.9	35.8	2.0	100

표 8. <지식채널e>의 각 교과별 활용 빈도

34) 한혜정 외,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개발연구』, 20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림 4> <지식채널e>의 각 교과별 활용 빈도

4. 수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식채널e>의 개선방안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지식채널e>는 수업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로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및 교육 환경에 적합한 가장 새로운 교육 콘텐츠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채널e>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을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지식채널e>의 활용 시 아쉬운 점, 활용하지 않게 된 이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① SNS 등에서 방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25	6.9
② 영상이 끊기는 경우가 많음	10	2.8
③ 내용 자체의 화제성이 떨어짐	8	2.2
④ E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는 것이 번거로움	79	21.9
⑤ 수많은 회차의 방송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업에 적용하기 어려움	200	55.4
⑥ 학생들이 보기에 영상 편집 및 스타일의 참신성과 매력이 떨어짐	17	4.7
⑦ 기타	22	6.1
계	361	100.0

표 9. <지식채널e>의 수업 활용 시 아쉬운 점

먼저, <지식채널e>의 수업 활용시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수많은 회차의 방송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55.4%)으로 나타났다. 또한 E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는 것이 번거로움(21.9%)도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및 정보의 접근성이 콘텐츠 활용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지식채널e>가 최근 학교에서 활용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한 문항에서도 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콘텐츠 접근성이 떨어지며, 수업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움(179건, 24.8%)을 가장 높게 언급하였다. 또한 유사한 콘텐츠가 많아짐(141건, 19.5%)과 콘텐츠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형식적인 신선도가 떨어짐(110건, 15.2%), 수업 방법이 바뀌면서 동영상 활용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짐(102건, 14.1%)도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방송 콘텐츠의 형식 및 미디어 접근성 등이 교실 수업 상황에서도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수업용 미디어의 플랫폼, 형식,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교에서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지식채널e>가 개선할 사항

을 묻는 문항에서, 교사들은 <지식채널e> 목록 등을 담은 자료집 등을 학교로 발송하고(188건, 20.5%), 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 방법 등을 개선하는 것(178건, 19.5%)을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답하였다. 각 콘텐츠와 연계되는 교과 및 성취기준 안내(136건, 14.9%) 또한 교육과정에 적합한 콘텐츠를 검색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최근 교사들의 교수·학습 자료 운영 성향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지식채널e>를 활용한 수업안 소개(111건, 12.1%), 각 콘텐츠와 연계되는 발문이나 활동 제공(111건, 12.1%)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업 현장에서 가장 즐겨 사용되는 대표적인 미디어 콘텐츠인 <지식채널e>가 현재 학교 교육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 및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본 콘텐츠의 교육 자료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탐구하였다. <지식채널e>는 2005년 방영 이후 현재까지 가장 현장에서 선호되는 교육용 콘텐츠이며, 지식 전달의 새로운 형식과 미디어 스타일로 각광받았으며, 특히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참여하고 담론을 형성해 온 프로그램으로 교육 콘텐츠로서의 목적 및 언론의 사회적 역할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방영 10년이 지난 현재, 프로그램 자체의 활용도 및 화제성은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채널e>가 2005년부터 10년간의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주목받은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임을 주목한다. 따라서 <지식채널e>의 활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본 프로그램의 개선 뿐 아니라 향후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본 연구 결과, 수업에서 활용하는 공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과정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설문 조사에서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위한 방송 콘텐츠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교육과정 내용과의 적합성을 선택하였다. 이는 75.3%의 비율로,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최우선시 되는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문항, <지식채널e>를 선택한 이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수업에 활용할 때의 영상의 분량, 수업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성 등 40%이상의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답변 모두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수업에서 고려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자료로서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지식채널e>의 수업 활용시 아쉬운 점에서도 나타난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수많은 회차의 방송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업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55.4%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교사들이 교육용 미디어 선택에 있어서 미디어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진행해야 할 교육과정에 맞추어 필요로 하는 미디어를 조사하는 수업 준비의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식채널e>의 개선방안으로 응답된 목록을 담은 자료집의 발송, 영상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 각 콘텐츠와 연계되는 교과 및 성취기준 안내 등은 <지식채널e> 뿐 아니라 교육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의 기획 및 개발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지식채널e>의 국가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콘텐츠 자체의 개선보다도 미디어 내용의 홍보 및 기존 콘텐츠를 국가 교육과정과 연결시키고 수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의 해결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교사들은 지식채널e를 수업에서 가장 즐겨 활용하는 교과로 사회, 도덕, 범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

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채널e>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전 교과를 포괄한다. 예를 들어 <지식채널e>의 범주에는 ‘미디어’, ‘문화 예술’, ‘생활’ 등 다양한 교과를 포괄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각 학년 및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결, 자료 집 발송,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자료 및 워크북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활용의 모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송 홈페이지와 DVD에서 SNS로: 미디어 접근성의 중요성

<지식채널e>가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콘텐츠 접근이 떨어지며, 수업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은 전체의 49.6%에 달하였다. 또한 수업 활용시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E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어려움에 21/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다른 문항인, <지식채널e>에 접근하는 경로에 대한 답변과 비교해 보면, 교육용 미디어 접근 통로가 유튜브와 같은 SNS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에 접근하고 있다는 응답은, 출판사 및 교육청에서 제공한 교수·학습 자료 및 DVD에 비하여는 현저히 높았으며, 심지어 인터넷 교사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 보다는 높아, 교육 미디어 접근에서 SNS가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지식채널e> 및 기타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고, 홍보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활용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물론 로그인이 필요한 홈페이지나 DVD가 아닌, SNS에서의 콘텐츠 공유는 교육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 및 수익성과 관련된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 현장의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과정의 준비 또한 주어진 교과용 도서 및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교사 스스로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재를 검색하고 선택하며, 이러한

미디어를 중심으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서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를 통한 접근성의 개선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수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응답으로, 유튜브 등에 탑재된 1인 미디어 콘텐츠나 교사 자체 제작 콘텐츠가 각각 2,3위의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고려할 부분이다. 이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이미 1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쌍방향성 및 유연함, 현장 적합성 등의 측면에서 교육 미디어 수요자의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교육용 콘텐츠의 형식 변화

<지식채널e>에 대한 기사 및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으로 미디어 스타일의 참신성을 언급해 왔다. 감각적으로 편집된 영상과 대사 없이 자막과 음향효과 및 시각효과 중심으로 편집된 미디어 스타일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성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첫 방영 이후 12년을 맞은 현재, <지식채널e>는 과격적이고 참신한 미디어 형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유사 포맷의 영상들이 늘어났고, 짧은 2~3분 정도의 인터넷 클립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지식채널e>가 학교에서 활용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유사한 콘텐츠가 많아짐’이라는 답변이 39.1%를, ‘콘텐츠의 전개 방식이 반복되면서 형식적인 신선도가 떨어짐’ 및 ‘학생들이 보기에 영상 편집 및 스타일의 참신성과 매력이 떨어짐’이라는 응답이 각각 30.5%와 21.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미디어 스타일이 <지식채널e>의 정체성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참신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형식적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형식과 관련하여, 본 설문에서 눈여겨 볼만한 응답 중 하나는 ‘수업 방법이 바뀌면서 동영상 활용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 짐' 이라는 응답이 28.3%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의 활용에 있어서 교사가 학생에게 동영상 보여줌과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보다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형태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수업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식채널e>를 수업의 핵심 자료가 아닌 학습 동기유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식채널e>의 지식전달 방법에 대한 임종수의 연구³⁵⁾에서는, <지식채널e>의 지식 습득은 힘들며 노력해야 하는 공부가 아닌 소통이며, 사회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다양하게 누적된 지식콘텐츠와의 상호작용적 즐거움과 소통을 통해 구축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식채널e>의 PD를 역임한 김진혁은 프로그램의 재미가 본 프로그램의 핵심이며, 계몽적 방식을 피하고 소통을 강조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³⁶⁾ 이러한 점들은 빠르게 미디어 콘텐츠의 형식이 진화하고 있는 이 때, 교육용 콘텐츠로 다시 주목받기 위하여 <지식채널e>가 시청자와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채널e>의 PD였던 황정원은 <지식채널e>의 참신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지식채널e>는 항상 신선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본 듯한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시각적 콘텐츠에 예민한 요즘 젊은 세대에게도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보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죠. <지식채널e>는 구닥다리가 되는 순간 시청자의 관심에서 멀어질 거예요. <지식채널e>의 실험정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³⁷⁾

35) 임종수, 「디지털 시대의 지식사회학: EBS <지식채널e> 읽기」. 『프로그램/텍스트』, 2007, 16: pp 165~176.

36) 안은별, 「1초 들보잡이 미친 존재감으로... 어쿠스틱 인문학, 지식채널e의 진화!」 프레시안, 2001. 11.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5789>. 2017. 10.15.

37) 허남철, 「5분, 세상을 담아내는 무한한 시간, 지식채널e의 10년, 경향신문, 2015. 09.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2218071&code=960801#csidxf4921a140ec3bff9cffe

새롭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소통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하며 신선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미디어 형식의 적용은 <지식채널e>뿐 아니라 교육용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 보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4. 시대와 함께 호흡하기-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교육 미디어 콘텐츠

본 연구를 통해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지식채널e>가 이미 방영한지 12년이 넘는 장수 프로그램이며,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개선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즐겨 활용되는 교육용 방송 콘텐츠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초·중·고의 전 학년 및 다양한 과목을 담당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지식채널e>를 가장 널리 활용하는 지식 콘텐츠로 응답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이 콘텐츠가 교육 현장에서 가지는 힘을 보여준다. 그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교사들은 그 원인을 교육과정과의 적합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으나, <지식채널e>가 실제로 활용되는 교과에 대한 응답을 통해, <지식채널e>의 주제가 다루는 사회적 관심이 교육과정에서 널리 활용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지식채널e>의 활용 빈도는 사회(4.19), 도덕(3.96), 범교과(3.80), 창의적 체험활동(3.79), 과학(3.50)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채널e>가 폭넓은 사회적 이슈를 다뤄왔기 때문이다. 김남일과 이규정의 연구에서는 <지식채널e>의 콘텐츠가 ‘사회’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웹 사이트에 ‘댓글 수’ 순으로 나열한 타이틀별 분류는 모두 사회(society)로, 시청자들이 현실사회에 대한 주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설명한다.³⁸⁾ 이는 <지식채널e>가 단

5a9cb597b49, 2107. 10.12. 」

순히 지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현실 사회에 대해 언론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이러한 점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화두를 던져 줌을 보여준다. 현재 <지식채널e>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프로그램 범주는 가족/공동체, 노동, 다양성, 미디어³⁹⁾, 여성, 문화/예술, 경제, 리더쉽, 가치관/관점 등 다양한 사회의 이슈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는 사회와 도덕을 비롯한 각 교과 이외에도 범교과 수업과 관련하여 <지식채널e>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교사들의 답변과 견주어 볼 수 있다. 현재의 학교 교육은 책 안의 지식이 아닌,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이에 대한 지식을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함으로서 지식을 구성하고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범교과 교육 주제인 인성교육, 안전·건강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진로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은 이러한 주제들이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 통합적 교육과정을 구성 등을 통해 활발히 학교 교육으로 활성화 될 것을 명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식채널e>의 내용적 측면에서 시의성과 사회적 담론 형성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교과용 도서가 제공하기 어려운 사회에 대한 다른 시선과 생각의 방향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38) 김남일, & 이규정, 「사회적 쟁점에 대한 발언으로서 다큐멘터리의 수사학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11, pp 53~72.

39) <지식채널e> 공식 홈페이지의 다시 보기에서는 방영 콘텐츠를 타이틀 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어머니, 교육시리즈, 기념일, 관점, 기회, 코미디, 문화유산시리즈, 경제시리즈, 정체성, 지구, 90분(2006 독일 월드컵), 건강, 경제, 공간, 과학, 관계, 교육, 기술, 기억, 돈, 문학, 문화, 뮤직비디오, 민주주의, 사람, 사회, 삶, 상상, 생존, 수학, 어린이, 언론, 여행, 영웅, 영화, 예고편, 이야기e야기, 인간, 인생, 인터뷰, 자연, 지식, 진실, 캐릭터, 환경, 희망, 정서, 너머, 게스트, 문화유산, 선택, 가격, 성공, 시장, 꿈, 생각, 놀이 놀e, 언어, 수필, 디자인, 사랑, 순간, 리메이크.
<http://home.ebs.co.kr/jisike/replayList> 2017. 10.31.

일반적인 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지식은 단순한 내용 전달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형태로 학습자 및 시청자가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제작의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진혁(2010), 『감성 지식의 탄생』, 마음산책

2. 논문

강현구, 「지식채널e의 경쟁력, 자막의 서사전략」. 『한국문예비평연구』 32, 2010, 309-348.

구승용, 「중학교 도덕 수업을 위한 EBS ‘지식채널e’ 프로그램 활용 방안」, 2011, 경북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남일, 「사회적 쟁점에 대한 발언으로서 다큐멘터리의 수사학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3, 2011, 53-72.

김남일, 이규정, 「사회적 쟁점에 대한 발언으로서 다큐멘터리의 수사학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11, 53-72.

김선진, 「TV 시사 다큐프로그램의 제작관행의 변화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1(4), 2011, 41-50.

김애경, 「영상 자료를 활용한 쓰기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논술 쓰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큐멘터리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지연, 이한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식채널e연구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에 대한 인식 연구-하버마스의 보편 화용론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11), 2014, 133-135.

류남이, 「방송콘텐츠 서비스 전략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9-10-11(합본호), 2013, 93-124.

박신영,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극에서 문자와 음악이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EBS <지식채널e>를 통한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

- 보』, 24(6), 2011, 166-208.
- 박유신, 이규정, 손지현,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 선정 기준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17, 47: 295-333.
- 신선혜, 「초등과학 수업을 위한 지식채널 e 활용방안」.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윤영미, 「영상 텍스트 비판적 읽기 지도 연구-EBS ‘지식채널e’ 읽기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경수, 「사회과 수업사태에서 영상매체 활용 방안-지식채널e ‘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이광수, 「초등 사회과 수업에서 영상자료 ‘지식채널 e’ 의 활용에 관한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상아, 윤여탁, 「다큐멘터리의 언어적 창의성 연구」. 『국어교육연구』, 31, 2013, 169-197.
- 이선혜, 이상원 「초등환경교육을 위한 지식채널 e 활용방안」. 『환경교육』, 26(2), 2013, 175-193.
- 이영주·김진혁, 「지식 저널리즘과 텔레비전 문화: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1-2호, 2009, 49~80.
- 이은정, 「‘지식채널e’ 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태구, 김규리, 이한주, 「스포츠맨십 함양 체육수업 개발과 적용」. 『체육과학연구』, 2016, 27(2), 362-381.
- 임중수, 「OSMU 미디어 환경에서 지식콘텐츠 제작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06, 20-4, 267~301.
- 임중수, 「디지털 시대의 지식사회학: EBS <지식채널e> 읽기」. 『프로그램/텍스트』, 2007, 16호, 165~176.
- 전윤주, 이상원, 「지식채널 e를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26(2), 2015, 47-66.
- 전은희, 「중학교 인성교육의 실제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계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4(2), 2016, 255-303.
- 조선혜, 임동택, 「지식채널e를 활용한 초등 도덕과 교육방법」. 전국도덕윤리교육학회 201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원고, 2014, 157-204.
- 조수선, 「방송언어정보의 시각적 전달양상에 관한 연구-<지식채널e> 자

막의 학습적 인지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6), 2012, 310-333.

최민성, 「문자의 영상화와 그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11호, 2008, 31~50.

3. 연구보고서

한혜정 외,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개발연구』, 20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뉴스, 인터뷰

김칭연, ‘말 없는 5분 지식 동영상’이 세상을 바꿨어요- [함께하는 교육] EBS 지식채널e 활용 수업 현장’,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PRINT/647866.html> (검색일자: 2017. 10. 21)

안은별, 「1초 들보잡이 미친 존재감으로...어쿠스틱 인문샷, 지식채널e의 진화!」 프레시안, 2001. 11.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5789> (검색일자: 10. 15)

이순이, 「‘지식채널e’로 호기심과 수업참여 이끄는 교사모임」, 『행복한 교육』, 교육부,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5&nttId=3160 (검색일자: 2017. 10. 10)

최원형, ‘지식채널e, 교육 다큐의 새 장 열다’, 한겨레신문, 2013.4.30 (검색일자: 2017.10.20)

허남설, 「5분, 세상을 담아내는 무한한 시간, 지식채널e의 10년, 경향신문, 2015. 09.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2218071&code=960801#csidxf4921a140ec3bf9cffe5a9cb597b49 (검색일자: 10.12)」

ABSTRACT

Perceptions of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 as educational media for school teachers

Park, Yooshin · Na, Yeohoon · Jang, Eunju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 is often used as educational materials; it delivers very short but compelling message of strong or interesting timeliness. However, as the media environment changes, expectations and demands for The Knowledge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 is used in school education and what should be improved upon to increase utilization of educational resources. We surveyed 361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nd analyzed the frequency of using, approach and learning activities of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 in school education. We also analyzed difficulties in using it in the school and wha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Result show that the frequency of using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 in school is highest in elementary schools, followed by middle school, and then high school. Teachers strongly consider curricular relevance when selecting broadcasting contents for education, and among programs of EBS(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most frequently use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 The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 is mainly used as an incentive for increasing motivation. When examined by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his material is highly utilized in subjects with content such as society, morality, and science, or with approaches that require various perspective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eachers to

find materials directly related to their classes, and since other media content similar to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㉔ is abundant, the utilization of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㉔ is decreasing. To improve this,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㉔ needs to improve its platform and transformed the type of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㉔ content being provided on social media.

Key Word : The Knowledge of the Channel ㉔, educational media, media literacy, integrated curriculum

박유신(주저자)
서울석관초등학교 교사
(0278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05
Tel : 02-959-1391
hoogh@sen.go.kr

나여훈(제2저자)
서울우면초등학교 교사
(0676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59
Tel : 02-2057-1671
applelady@sen.go.kr

장은주(교신저자)
마곡중학교 교사
(07598) 서울 강서구 마곡동 736-1
Tel : 02-2665-8502
eunju4368@sen.go.kr

논문투고일 : 2017.11.01.

심사종료일 : 2017.11.26.

게재확정일 : 2017.11.26.

<부록> 설문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EBS의 <지식채널 e> 제작 10주년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지식채널e의 교육적 활용 양상>연구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해 오신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지식채널 e>는 단편시사교양프로그램으로서, 사회, 역사, 과학기술, 인문,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화두를 던져왔으며, 교육현장의 미디어로써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는 <지식채널 e>가 교육적으로 더욱 의미 있고 활용도 높은 콘텐츠가 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문 조사에서 선생님의 의견은 익명으로 분석되며,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는 오로지 연구의 기초 자료로만 귀중히 활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원 박유신(서울석관초등학교), 장은주(마곡중학교) 드림.
(Yooshin.park@gmail.com)
(eunju4368@sen.go.kr)

I

지식채널e 활용 경험

1. 현재 <지식채널e>의 교육적 효용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유용함 ② 유용한 편임 ③ 보통
④ 조금 유용함 ⑤ 거의 유용하지 않음

2. 수업에서 <지식채널e>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선생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거나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활동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

- ① 학기 당 3회 이상 ② 학기 당 1회 이상 ③ 매년 1회 이상
④ 3년에 1회 이상 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 선생님께서 수업에 주로 활용하는 매체 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EBS 방송 프로그램 중 선생님께서 수업에 활용하시는 콘텐츠를 골라주세요.(3개까지 선택 가능)

- ① <지식채널e> ② 다큐프라임 ③ 배움너머
- ④ 세계 테마 기행 ⑤ 역사채널e ⑥ 세상의 모든 법칙
- ⑦ 하나 뿐인 지구 ⑧ 극한 직업

3-2. 선생님께서는 수업에 활용할 방송 콘텐츠를 선정할 때 주로 어떤 것을 고려하시나요?

- ① 교육과정 내용과의 적합성 ② 방송 프로그램의 흥미 및 재미
- ③ 방송 편집의 참신 ④ 방송 내용의 교육적 효과성
- ⑤ 콘텐츠를 구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편리성 ⑥ 기타

3-3. 수업을 위해 선생님께서는 다음 미디어 콘텐츠 중 어떤 것을 즐겨 사용하십니까?(3개까지 선택 가능)

- ① 지식채널 e 등 미니 다큐멘터리 콘텐츠 ② 여행 다큐멘터리
- ③ 청소년 대상의 TV쇼 ④ 애니메이션
- ⑤ 영화 ⑥ 유튜브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
- ⑦ 교사 제작 수업 콘텐츠 ⑧ 기업에서 만든 교육용 보조 자료
- ⑨ SNS 등에서 얻은 동영상 자료 ⑩ 카드 뉴스
- ⑪ 국내외 뉴스 ⑫ 예능 프로그램

II 수업에서의 활용 양상

4~8은 선생님들께서 <지식채널e>를 수업에 활용하시는 양상에 대한 다소 자세한 질문입니다.

4.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로 <지식채널e>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까지 선택 가능)

- ① 시의성 있는 자료이기 때문
- ②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
- ③ 교과 내용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
- ④ 수업에 활용하기에 영상의 분량이 적절하기 때문
- 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장면이 구성되었기 때문
- ⑥ 수업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5. <지식채널e> 콘텐츠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나요?

- ①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이용
- ② <지식채널e> DVD 이용

- ③ <지식채널e> 홈페이지나
- ④ 포털 사이트 이용
- ⑤ 인터넷 교사 커뮤니티에 탑재된 자료 이용
- ⑤ 동료 교사를 통해 수업에 활용할만한 콘텐츠를 전달받음
- ⑦ 출판사나 교육청 등에서 제공한 교수·학습 자료에 포함된 콘텐츠 활용

6. <지식채널e>는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나요? (2개까지 선택 가능)

- ① 수업의 동기 유발 자료
- ② 수업을 위한 핵심 자료
- ③ 수업의 심화 활동 자료
- ④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 ⑤ 동아리나 자유학기제 수업 자료
- ⑥ 봉사활동 등 특별활동을 위한 자료

7. 수업에서 <지식채널e>를 시청한 학생들에게는 주로 어떤 활동을 제시하시나요?

- ① 소감이나 생각 말하기
- ② 토의·토론하기
- ③ 콘텐츠 관련 학습지 해결
- ④ 영상을 보고 자기 생각을 글이나 그림, 영상 등으로 표현하기
- ⑤ 수업에서 본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학습 진행
- ⑥ 기타 ()

8. (초등학교 선생님만 답해 주십시오.) 어떤 과목에서 주로 활용도가 높았나요? 활용도를 점수로 표현해 주십시오.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① 국어					
② 도덕					
③ 사회					
④ 수학					
⑤ 과학					
⑥ 음악					
⑦ 미술					
⑧ 실과					
⑨ 체육					
⑩ 영어					
⑪ 창의적 체험활동					
⑫ 법교과					

9. <지식채널e>를 수업에 활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① SNS 등에서 방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 ② 영상이 끊기는 경우가 많음
 - ③ 내용 자체의 화제성이 떨어짐
 - ④ E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는 것이 번거로움.
 - ⑤ 수많은 회차의 방송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업에 적용하기 어려움
 - ⑥ 학생들이 보기에 영상 편집 및 스타일의 참신성과 매력 떨어짐
 - ⑦ 기타 ()
10. 최근 <지식채널e>가 학교에서 잘 활용되지 않게 된 이유를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유사한 콘텐츠가 많아짐
 - ② 시청자들과의 소통 구조가 활성화되지 않음
 - ③ 시의성이 떨어짐(현재 쟁점이 되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음)
 - ④ 콘텐츠의 전개 방식이 반복되면서 형식적인 신선도가 떨어짐
 - ⑤ 콘텐츠 접근성이 떨어지며, 수업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움
 - ⑥ 수업 방법이 바뀌면서 동영상 활용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짐
 - ⑦ 학생들이 보기에 영상 편집 및 스타일의 참신성과 매력이 떨어짐
 - ⑧ 기타 ()
11. <지식채널e>가 개선해야 할 점을 골라주십시오. (3개까지 선택 가능)
- ① <지식채널e>를 활용한 수업안 소개
 - ② 각 콘텐츠와 연계되는 발문이나 활동 제공
 - ③ 각 콘텐츠와 연계되는 교과 및 성취기준 안내
 - ④ 최신 미디어 기법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스타일을 개선
 - ⑤ <지식채널e> 목록 등을 담은 자료집 등을 학교로 발송
 - ⑥ 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접근 방법 개선
 - ⑦ 각 콘텐츠의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홍보
 - ⑧ 청소년의 참여를 높이는 기회(아이디어 공모, 방송 촬영 지원, 에세이 대회 등) 마련
 - ⑨ 기타 ()
12. (선택) 그 밖에 <지식채널e>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주제나 제작진에게 요청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

IV

기본 인적 사항

※ 다음은 선생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교직 경력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3. 학력

- ① 학사 ② 석사 과정/수료/졸업 ③ 박사 과정/수료 ④ 박사

4. 재직 학교급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5. 근무지역

- ① 읍면지역 ② 중소도시 ③ 대도시

6. 담당 교과

(중등교사만 응답)

- ① 도덕 ② 국어 ③ 사회 ④ 영어 ⑤ 한문
-
- ⑥ 수학 ⑦ 과학 ⑧ 기술·가정 ⑨ 진로
-
- ⑩ 음악 ⑪ 미술 ⑫ 체육